

5分 자유 발언

이 한승 의원

그리고 이해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무주 군민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도히 밀려오는 잘살기 경쟁, 일류가 되기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적 사고나 이상적 설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대전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매력과 추진동력을 창출하지 못해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됨으로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농가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며 농촌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가계부채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일자리는 자꾸만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시점에 오늘 본의원은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해 지역경제 활

동은 날로 위축되고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애환어린 삶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 지침을 보면 상반기 중에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이전 경비 등 대상 사업의 82%를 발주하고, 발주 사업의 52%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은 설계 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1분기 중에 모두 발주토록 하고 있고, 부군수를 실장으로 하여 조기 발주 추진 상황실을 유지·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중 사업의 발주와 자금 집행 실적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분기 중에 발주를 이미 마쳤어야 할 120건 정도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중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았으며, 물품 구매 역시 공공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류 구입에 그쳤으며 자금 집행 또한 인건비를 포함해도 13%수준인 236억원에 그치는 등 지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상태라면 과연 상반기 중에 사업의 82%를 발주하고 자금의 52%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해마다 공사 발주를 늦게 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과연 행정에서는 정부의 방침, 지침,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는데도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이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한테는 지키라고 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이 고장에서 살겠습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 행정이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지침을 어겼다면 잘못을 따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민과 행정이 공정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군민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군민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역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은 군민의 뜻이 담겨 전하였다는 것을 알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